

시론



강동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사)생명존중 지구촌 연대 뇌건강치과학과 시인연구원 추진위원장

“반갑습니다”는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원하는 일과 소식을 들어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옛말의 “반갑습니다”의 반은 신(神)과 관련 있다는 해석과 그 의미 속에 신명난다는 내포하고 있어 필자는 반가운 사람의 신과 같고 반가운 것은 희망을 주는 빛이나 보물 같은 존재라 해석해 본다. 인간은 반가운 만남을 통해 희로애락을 느끼고 살아간다.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며, 낯설지만 무언가 반가운 기대를 하게 한다. 환란한 세상일수록 잘되길 바라는 덕담이 소중하게 느껴지며 특히 반가운 분으로부터 다정함과 긍정성을 담은 덕담이라면 금상첨화이다.

덕담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복’이다. 하지만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 받으세요’ 보다는 ‘좋은 복을 지어주세요’가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인간은 복이라는 말에 쉽게 유혹받고 약해지기에 오복 즉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희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에 대한 바람을 갖는다. 특히 나이 들수록 편안히 삶을 마무리하는 고종명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늘 결핍과 결여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모든 복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신개념 뇌건강 치과(X)

- 다정함과 긍정성이 갖는 새해 덕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과 선택을 이어가지만, 죽음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집단적인 희망한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아름다운 고종명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다. 필자는 철학 공부를 좋아했던 지인과 대학 제자를 포함해 무안공향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생겨나는 분노, 미움, 증오와 한을 해소하고 서로 잘되도록 하는 해원상생(解 相 生)의 철학적 자정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반가운 분끼리 나누는 말에는 친절함과 다정함이 깃들여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거나 ‘말이 씨앗이 된다’라는 속담에서 보듯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최근에 필자는 Cafe Philosophia(지도: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에서 학습한 책 중 켈리 하딩의 <다정함의 과학>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환자의 사례를 연구해 개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 외에 다정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친절, 우정, 사랑, 존엄, 가족과 이웃 및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 일과 인간관계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등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을 위해 긍정과 다정함이 갖는 정서적 말로 적대시키고 편 가르는 사회를 지양해야 할 시점임을 인식하게 된다.

뇌과학적으로 정서적 정보를 지닌 말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업의 앞쪽 전문업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한다.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섬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하

고 있다. 긍정적인 특성을 갖는 사람은 부정적 말을 들어도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돼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반대로 부정적 특성을 갖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에 편도체와 뇌섬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한 다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듣고, 배우고, 말하는 사회 환경적 정서 훈련이 요청되고 있다.

언어는 좌뇌의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그리고 우뇌의 상호작용으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성장단계의 인지작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좌뇌의 베르니케 영역은 시각, 청각, 촉각을 통해 단어의 소리와 단어가 나타내는 사람, 장소, 사물 사이의 관련성을 저장하는 사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브로카 영역은 계획, 순서, 논리, 규범, 학습, 추론 등을 담당하는 전문업에 위치해서 문법적인 언어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뇌는 언어의 감정적 운율(강약, 장단, 고저, 리듬)을 담당하므로, 다정한 말은 언어적 신경망의 조화에 의한 이성과 감성의 소통이다.

인간은 말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고, 감정을 주고받고,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품는다. 또한 뇌는 말의 내용에 따라 뇌가소성의 긍정성과 활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우주, 철학, 예술, 사회, 과학, 역사 등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정서적 말을 배우고 사유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새해의 여운이 가득한 지금, 우리가 경험한 다정하고 긍정적인 말을 나누면서 충만한 뇌의 긍정 에너지로 관용과 배려를 실천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

자치칼럼



임우진

민선6기 광주 서구청장

지난 12월3일 갑작스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방·외교·경제 등 국정 전반의 혼란과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여야 간 무조건 반대와 일방적 법안결,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반복되고, 계속되는 탄핵에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면서, 나라가 순식간에 위태로운 나라에 빠져버린 것이다. 근본적으로 양보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대립 갈등이 빚어낸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은 그동안 걸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실제로는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을 위한 끝없는 정쟁을 일삼아 왔다. 지역과 이념 기반의 거대 양당이 권력쟁취를 위해 상대를 양보 타협 아닌 타도 적결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대립 갈등이 일상화됐다. 이러한 정치를 심판해야 할 국민은 심판은커녕 거대 양당이 줄서 무조건 지지를 보냄으로써 대립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할 지역독점과 대립갈등의 양당구조를 양보타협의 다당구조로 바꾸자는 요구, 국민들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주민자치 제도화 요구는 외면하고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역량함양 노력과 책임은 방기해 왔다.

따라서 최근의 국가적 위기상황의 제도적

주민자치, 주민 주도로 꽃 피우자

원인인 거대 양당의 대립정치를 협력적 다당제로의 개혁과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고 양보 타협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민주주의와 역량함양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보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사회교육의 장인 주민자치의 제도화와 제도적 육성 정책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사회적 환경속에서 금년도 주민자치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주민자치, 이제는 주민의 책임이다. 주민주도로 꽃피우자’라는 제안을 주민(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주민자치 육성정책은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더디지만 나름 노력해왔다. 20여 년 동안 주민자치를 운영해 보면서 주민자치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것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다. 미흡하지만 어느 정도 제도적 뒷받침도 되고 있다. 운영은 기초단체장과 공무원이 주민(지도자)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대체로 행정이 주도하고 마을자치회가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마을(자치회)가 주도적인 자치공동체 만들기에 도전해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어야 할 때가 됐다. 언제까지 지자체가 육성이란 이름으로 주민자치에 관여할 수는 없다. 특히 윤석열정부는 주민자치 제도화와 성숙발전 노력을 철저히 외면·말살시켜왔다. 또 기초단체장은 선거직으로서 주민(지도자)들을 자신의 정치조직으로 편입시키려 하기 때문에, 제도적 주민자치 육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더구나 금년은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으로 단체장이 정치적 세력확대를 절제하고 휘하의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주민자치 정책

을 올바르게 흔들림 없이 수행해 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주민주도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의 주민자치활동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해서 실천하면 될 것이다. 첫째, 주민자치는 주민(지도자)이 책임지고 운영한다는 주체이식,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는 마을의 모든 활동과 사업운영과정에 자치이식과 정신, 즉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기본원칙으로 삼는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셋째, 올바른 정도자치를 추구해야 한다. 자치활동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고려, 개인적 이해관계, 정치적 입지수단화, 대가 기대, 개인적 과벌형성 등을 헤쳐는 안 된다. 넷째, 주민자치를 주민주도로 운영한다고 해서 단체장이나 공무원 등과 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자치운영에 불필요한 간섭, 관여는 절제하고, 필요한 정보제공, 행정적 지원 등 총괄적인 지원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균형있는 지방자치 육성과 실질적 생활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주민자치를 정책적으로 도입·육성해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와 선거직 단체장의 탈레 마적 상황 등 후진적 정치로 인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고, 윤석열정부들어서는 사실상 방기했다. 따라서 우리의 후진적 정치환경속에서 주민자치의 성숙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복구어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나서야 한다. 2025년은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를 주도해 온 국민의 역량으로, 제도적 민주화 이후의 양보와 타협의 실질적 생활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한, 정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뤄 내야 한다.

社說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영업자 구제 특단의 대책 없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잇따르는 중소기업에 공제금의 규모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광주지역 지급 건수는 3천120건으로 전년(3천99건)보다 늘었으며, 금액은 346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남은 2천992건으로 전년(2천981건)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으나, 액수는 209억원으로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연말연초 특수는 고사하고 식당도, 상가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도 이겨냈는데 더더욱 힘겨운 시절이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공제금도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4년 1월-11월 기준 지급된 공제금 총액은 1조3천1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천820억원)보다 10.1%(1천199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연간 지급액(1조2천600억원)을 이미 초과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전국에서 98만6천487명으로 100만명에 육박,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정점을 찍

었다.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도 더 많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업 순으로 폐업이 몰렸다.

계엄 사태로 비롯된 정치 불안이 증폭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이다.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 지경에서 언제나 회복될지 기약할 길이 없다. 정부는 국정 안정과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10년째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더니 가을에는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매출이 오르지 않아 폐업하려 한다”는 글이 게시돼 암담한 현실을 대변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가 심각하다. 이대로면 폐업은 가속화될 것이다.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민생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내수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광주·전남 저출산 정책·아이돌봄 강화 효과 거두려면

광주와 전남도가 아이돌봄 서비스와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휴일·야간 영업으로 인한 돌봄 공백과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지원 패키지 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1자녀 기준 총 360만원(1개월당 60만원, 6개월간), 2자녀 기준 총 540만원(1개월당 90만원, 6개월간) 한도 내에서 이용료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소득, 연령,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30만-150만원의 시술비를 차등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난해 환자는 6천500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나, 시술비 등을 통해 매년 20-30%의 임신 성공률로 출생아가 태어나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전남의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지역은 53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2명, 전남은 682명으로 58명이 늘었다. 반면 1-1

0월까지 누적 증가율은 광주 -3.5%로 전국 평균(1.9%)에 미치지 못했으며, 전남은 2.5%로 평균을 넘어섰다.

광주시는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와 일가정 양립의 저출생 지원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의료·돌봄·일생활·케어를 한층 강화해 임신·출산·돌봄으로 연계되도록 정책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인구 대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정착, 주거 안정, 양육·돌봄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8년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기본수당은 1월부터 20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여러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다.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책 발굴보다 체감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들이 행복한 광주·전남을 만드는 노력이 속속히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이침묵은어는詩

산사에서의 하룻밤

이광석

겹겹 쌓인 낙엽이불을 덮고 겨울잠을 청하는 산사 고찰
공양시간 놓친 겨울바람 뒤죽
대웅전 뜨락 건너 나무 가지를 흔들다
이른 새벽부터 뿔뿔 반짝이던
건넌산 외딴 별 하나
처마 끝 풍경소리에 얼굴을 묻는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할
자유가 있다 따뜻한 잠과 쓸쓸한 추

위를 넘어 한 끼의 더운 밥상 기다리듯 너에게 가고 싶다
어느새 한 치쯤 옷자란 폭설의 벽을 밀고
이제 나는 간다 먼 마을 여러 등불처럼
낮게 흐느끼는 너를 향해 시린 향해의
달을 울린다
(시집 '바람의 기억', 경남, 2020)



[시의 눈]

올사년 새해입니다. 창으로 눈앞이 슬픈 일로 지난 한해를 돌아보기도 힘듭니다. 마음을 가리워달까, 눈 쌓인 산사를 찾지요. 벽치게 오는 일출에 소망을 겁니다. 그대 한동안 잊었던 ‘국태민안’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온갖 사고 광음이 우리 뒤축을 망가뜨리지만, 관념적인 이 말로나마 기원하기를 거듭합니다. 무안의 청천벽력같은 참사는 수많은 가족들의 소박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새해 아침, 한 끼 더운 떡국을 차립니다. 손자의 선물을 안고 숨진 할아버지의 뜻을 거기 담아드립니다. 산마를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높아질수록 낮게 흐느끼며 남은 달을 고쳐 울리고 새출발의 제를 다시 울립니다. 이광석 시인은 경남 의령에서 나 1959년 ‘현대문학’ 천리로 등단했고, 시집 ‘겨울나무들’(1974), ‘잡초가 어찌 낮을 두려워하라’(1990)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삶을 어지럽히는 잡초사나들을 내려 놓고 한 톱발소리가 새목탁소리를 빌어 침묵의 언어를 말하듯 하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독자투고

최근 농민단체들이 트랙터를 사용하여 집회 장소까지 시위(행진)에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 및 차단하는 모습을 언론에서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은 어떠한 법규범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집시법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트랙터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 근거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트랙터의 대수, 장소, 통행인원 등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안전 질서에 위협 초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지·고착하고자 노력한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경찰은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도 긴급성·보충성·필요성·비례의 원칙을 준수해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주호·장흥경찰서 경비안보과 경무계>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